

대장암 검진 시작 시기

검진은 대장암(결장직장암이라고도 함)을 예방하거나,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은 초기에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

검진은 보통 45세에 시작하여 최소 75세까지 계속합니다.

주요 검진 방법에는 다음이 있습니다.

- 대장내시경 10년마다
- 대변 검사 검사 종류에 따라 1~3년마다



조기 검진이 필요한가요?

일부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 45세 이전에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. 다음 사항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,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검진 시작 시기, 검사 종류, 검진 빈도에 대해 문의하세요.

- 본인 또는 가족 중 대장암이나 폴립 병력이 있는 경우
-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
- 가족성 선종성 폴립증 또는 린치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증후군
- 낭포성 섬유증
- 40세 이전에 암 치료를 받은 경우

변화가 생기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주세요.



대장암의 증상은 무엇인가요?

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질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세요. 다음 검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.

이 증상들이 반드시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

- 대변에 또는 배변 후 변기에 혈액이 있는 경우
- 대변이 짙은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는 경우
- 설사나 변비가 계속되는 경우
- 대변 모양이 변한 경우
- 배변 후 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
- 복통이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경우
- 식욕 감소 또는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
-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기운이 없는 경우

추가 정보는 nyc.gov/health/coloncancer를 방문하세요.